

01 교회소식

랜선으로 하나 되다

온택트로 개최된 몰도바 은사집회와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경작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03 기획특집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랜선으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질병이 치료되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킌사사만민교회 성도들.

04 간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화병과 퇴행성관절염을 치료받고, 남편의 장염과 손녀의 성장통이 치료되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38호 2021년 2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던 몰도바 랜선 은사집회



지난 2월 7일 주일 저녁 7시(현지 시각 낮 12시), 만민 기도원 이복님 원장을 강사로 몰도바 랜선 은사집회가 개최되었다(통역 손영락 장로). 이 집회는 예정돼 있던 몰도바, 러시아 선교 출장이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연기 되었음에도 집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해외 성도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줌(zoom)을 통해 우리 교회 본당과 몰도바만민교회 성전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몰도바 현지에서는 정부 코로나 방역 방침에 따라 50명 미만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으며 나머지 성도들과 다른 도시의 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몰도바 외에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스위스, 독일 등 해외 곳곳에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참석했다.

몰도바만민교회 리더 알렉산드르 타바라누 선교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몰도바만민교회 찬양팀 특송에 이어 강사 이복님 원장의 설교가 있었다. 이 원장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지금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달려 올 수 있었던 자신의 삶과, 죄를 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신앙에 대해 간증했다.

그 뒤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은 성령의 역

사 가운데 회개하고 결단하며 충만함을 받았다.

이어 이복님 원장은 미리 접수한 40명의 환자를 위해 화면 모니터에 직접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일일이 기도해 주었는데, 독일 크리스티안 클루스 성도는 “두통이 너무 심하고 혈압도 높았는데 기도를 받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으며 이후 두통이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몰도바만민교회 알렉산드르 타바라누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랜선으로 함께한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



지난 2월 14일 주일 오후 6시(현지 시각 오전 10시),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줌(zoom)을 통해 현지 킌사사만민교회와 지성전, 우리 교회를 연결해 랜선으로 진행되었다.

1부 기념 예배에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영상 축하 메시지 상영 후, 강사 이미경 목

사(교역자 회장)가 랜선으로 ‘빛의 열매’(엡 5:9~10)에 대해 설교함으로(통역 조승희 권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킌사사만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줌으로 류머티즘성 관절염, 충수염, 탈장, 심장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말라리아, 위궤양 등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3면 참조).

2부 축하 행사에서는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의 축하 서신 대독과 강사 이미경 목사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킌사사만민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찬양과 워십, 북과 전통 악기 연주, 전통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7)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신 후에 풀과 채소, 과목 등을 지으셨지요.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과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령, 곧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선과 빛, 진리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의 권세, 엄격한 공의 등 신성적인 면과 함께 사랑과 긍휼, 자비 등의 인성적인 면이 있으시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처럼 인성을 가지셨기에 외로이 홀로 계신 것보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신 것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친히 흙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오장 육부, 뼈와 근육, 모든 조직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생령이 되었지요.

그런데 흙자는 흙으로 빚은 형상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느냐며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피조물인 사람도 로봇이나 컴퓨터, 인공 장기나 피부를 만드는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각 속에 한계를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 안에는 부모의 모든 기가 결집돼 있어서 자녀들이 외모는 물론 성격, 지능, 습관까지 닮게 되지요. 이렇게 부모를 닮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씨를 통해 잉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한 대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단지 겉모습뿐 아니라 영이신

2.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이유

인류는 오랜 시간 ‘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 지’를 깨우쳐야 하지요. 여기서 ‘경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경의 많은 비유 중 특별히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고 열매와 곡식을 거두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하셨습니다(마 13장). 사람의 마음 밭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그 마음에 임할 때 진리로 결실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설명하셨지요.

또한 알곡과 쭉정이 비유(마 3장), 곡식과 가라지 비유(마 13장)를 통해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알곡과 같은 영혼들은 심판 날에 천국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영혼들은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경작과 같음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추수를 위해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섭리를 ‘인간 경작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옆에는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사들과 달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비유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때로는 말쑥도 부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꾸짖으면 곧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애교를 부리며 사랑스럽게 안기지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이해하는 만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날로 깊어지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매우 뛰어난 성능의 로봇이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갖고 사람처럼 음성을 내며 무조건 순종하지요. 어려운 일들도 시키는 대로 척척 해내므로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로봇이 있으니 자녀는 필요 없을까요?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녀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순종만 하도록 만들어진 천군 천사들보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원하셨기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지요. 경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으시면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3. 알곡과 쪽정이

농부가 최선을 다해 경작해도 추수 때는 알곡만이 아니라 쪽정이 섞여 나오기 마련입니다. 쪽정은 먹지도 못하며 곡간에 넣으면 알곡까지 먹지 못하게 되므로 거름으로 쓰거나 불에 태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경작하시고 최후에는 알곡과 쪽정을 가르는 작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킶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란 ‘지옥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 경작을 마감하시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쪽정이 된 사람들은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천국에 가는 알곡과 지옥에 가는 쪽정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알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죄악을 벗어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쪽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비진리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알곡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정욕을 좇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쪽정이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곡 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주셨지요.

그럼에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쪽정이에 불과하므로 알곡 된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들일 수 없지요. 미움, 시기 등 온갖 악을 가진 사람들을 천국에 들인다면 더 이상 천국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불멸하므로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모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둬 두는 것이지요. 쪽정이 된 영혼들은 각자의 죄값에 따라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이재록 목사 저서 『지옥』 참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목적에 따라 알곡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서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지요.

알곡, 곧 참 자녀로 나와 장차 영화로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랜선 기도를 하고 있는 강사 이미경 목사

랜선으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치료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성도들



“충수염으로 고통받았는데 치료받았어요”_ 베틀



“이제는 허리를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_ 읊



“심장질환으로 호흡이 불편했는데 괜찮아요”_ 끼똘도 싸로똘



“탈장과 충수염이 치료돼 편안합니다”_ 월송



“서 있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힘들지 않아요”_ 데티 올로모



“5년간 고통을 주던 교통사고 후유증이 없어졌어요”_ 루이스



“혈중으로 고통받았는데 치료받았습니다”_ 테테



“다리 통증이 치료돼 이제는 잘 걷습니다”_ 세바스찬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힘이 주어졌어요”_ 가무누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복부의 통증이 사라졌어요”_ 마트



“힘들었던 다리 통증이 이제는 없습니다”_ 빔비



“고통의 원인인 말라리아가 치료됐어요”_ 꾀다 부야



“무거운 것을 들어 몸에 심했던 통증이 사라졌어요”_ 다니엘



“극심한 허리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_ 말라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병과 퇴행성관절염이 치료됐습니다”

김문자 집사 (순천만민성결교회, 72세)

2020년 초부터 무릎을 꿇으면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더욱이 오른쪽 무릎 뒤에 물혹이 생기더니 점점 커져 주먹만 해졌지요. 이로 인해 오른쪽 무릎을 반듯하게 펼 수가 없어서 걸을 때 절어야 했고, 심할 때는 밤낮으로 통증이 있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2021년 1월 2일, 이 상황을 알게 된 아들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결과 퇴행성관절염이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2-3일 복용하다가 문득 '왜 내가 약을 먹지? '신년 작정 다니엘철야' 때 기도하면 치료받을 텐데'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시작한 '신년 작정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옷을 정갈하게 입고 마음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충만한 찬양이 나올 때에는 일어나 기쁘게 찬양하였지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1월 10일부터 진행된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에도 동참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등 10권을 2주 만에 다 읽었습니다. 책이 술술 읽혀졌고, 중요한 내용은 노트에 기록하였는데 마음에 쏙쏙 들어왔지요. 어떤 때에는 성령의 감동함 속에 눈물을 흘리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1월 23일, 평소와 달리 무릎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쪽 무릎 뒤를 만져 보니 주먹만 한 크기의 물혹도 사라져 무릎이 쭉 펴졌지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예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는데,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힘들게 하고 때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며 자식들을 키우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커져만 갔고, 버겁게 살아가던 저는 결국 화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배 속에 구슬만 한 크기의 혹이 들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점점 커져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하기가 힘들었고 소화불량으로 식사하기도 너무 힘들었지요. 얼굴엔 기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전혀 이상이 없었지요. 한약도 먹어 보고 침, 뜸 등을 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몸과 마음이 지쳐 슬픔에 빠져 있던 1992년 4월, 딸의 친구를 통해 만민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저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처음에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니 마침내 회개의 은혜가 임해 통회자복을 할 수 있었지요. 처음 해보는 3일 금식 기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호식 3일째 되는 날, 그동안 제게 있던 화병의 모든 증상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제게 다시 한번 하나님 권능을 체험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X-ray 촬영



▲ 기도받기 전 :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골극이 형성되어 있어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임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자라던 손녀 아민다르(5세)가 2018년 7월경부터 원인 모를 다리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밤새 자지도 못하고 울었지요.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았지만 아이의 모든 기관은 정상이었고, 통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몽골만민교회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저희 온 가족은 아민다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꼭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남편(발명호)도 일주일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해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지만 손녀의 치료를 위해 수련회에 참석했지요.

수련회 첫날,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민다르가 아프기 시작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경련까지 와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민다르는 “할머니, 너무 아파요. 못 참겠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조금만 참고 말씀을 끝까지



“ 믿음의 행함을 기뻐하셔서 장염과 성장통을 치료해 주셨어요 ”

별어르마 집사 (몽골만민교회, 56세)

들어 보자.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교육 시간 내내 입을 꼭 다물고 통증을 견뎌냈지요.

사실 그때 저는 아민다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교육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아민다르가 활짝 웃으며 “할머니, 저 치료받았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라고 말하며 기쁘게 뛰는 것입니다. 그 뒤 아이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잘 자고 뛰어놀며 건강합니다.

이뿐 아니라 남편도 교육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는데, 교육 후 설사가 멈추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되었으며 이후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의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반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